

레진코믹스 일본어판 블로그의 해명문 전문 번역

다음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일본어판 블로그에 게재한, 근간의 작가 불공정 대우에 논란에 대한 해명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디 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레진코믹스의 작가 부당 대우" 문서에 게재되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삭제된 뒤 2월 9일 에버노트로 이전해 게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페미위키의 저작권 규정을 어긴 점을 사과 드립니다.

(최초 게재: 2018년 2월 6일, 페미위키)

(게재 이전: 2018년 2월 9일, 에버노트)

【중요 공지】비방·중상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레진코믹스에 대한 비방·중상에 대하여 저희 회사의 입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폐사와 계약한 작가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정산 투명성과 정확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작가와의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주요 주주 회사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http://dart.fss.or.kr/>) 기존 재무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이 사이트에서 직접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레진코믹스와 계약한 작가 처우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1) 레진코믹스에서 연재 중인 작가들에게 달마다 최저수익 보장금액(MG, 미니멈 개런티)와 판매정산금액 중, 더 높은 쪽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 작품 완결 후에도 달마다 판매정산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유료 콘텐츠 판매 플랫폼으로, 광고 수익 등 별도의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인 레진코믹스가 MG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재 기간 중 해당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아도, 달마다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레진코믹스는 기본 MG제도를 통하여 판매 정산액이 월 2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해도, 200만 원까지는 저희가 금액을 보장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재 중인 작가의 당월 판매 정산액이 100만 원이 되었을 경우, 저희 회사는 100만 원을 더하여 2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최저 MG를 보장합니다.

가령 700만 원의 판매 정산액이 발생하면 700만 원을, 40만 원이 발생하면 16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200만 원이 발생하면 200만 원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작품 휴재 중에도 당월의 판매 정산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때 폐사가 작가에게 지불하는 MG에 대하여 앞으로 발생할 판매 정산 금액에서 MG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유료 만화 플랫폼에서 이 같은 MG 제도를 시작한 것은 레진코믹스가 처음으로, 현재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료 만화 플랫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레진코믹스와 계약 중인 작가들과는 작가 계약이 아닌 작품 계약(작가가 레진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인 형태) 형태로 계약했으나, 작가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건강검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내 우수한 건강검진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검진 대상인 작가들에게 일반적인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산부인과 검사 등의 기본 검사 이외에도, 선택적으로 내시경 또는 초음파 검사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밖에도 작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와 자녀에게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결혼식 축하를 위한 화환이나 신년 선물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레진코믹스의 복지제도는 작가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3. 커뮤니케이션 오해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현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레진코믹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내부 시스템 미비로 작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 지불을 마쳤으며, 작가 8명에게는 정산 금액 이외에도 지연에 따른 이자도 제안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작가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진코믹스는 2014년 중국 진출 당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2017년부터는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현지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작가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7000작품 이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700명 이상의 작가와 직접 작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작가와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편집부는 작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신설한 작가 커뮤니케이션 팀은 작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편 레진코믹스의 성장을 경계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일은 예전부터도 빈번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더한층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수록, 이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이들이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일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본질에 집중하여 "만화가가 그리고픈 만화를 그림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어야 독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레진코믹스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 내부의 개선점을 꾸준히 진지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